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한-영 번역 전략

박 경 란*

목 차

- | | |
|-------------------------|-------------------------|
| I. 서 언 | 2. 단어 수준 이상의 등가 |
| II. 충실한 번역에서의 침삭 | 3. 문법적인 등가 |
| III. 번역과 텍스트 | 4. 문장의 등가·응집력(cohesion) |
| IV. 번역의 단위와 제주 관련 번역의 예 | |
| 1. 단어 수준의 등가 | V. 결론 및 제언 |

I. 서 언

영어와 한국어 관계에서 번역이라 함은 대개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쉽게 떠올리며 영어 독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에 뛰어들지만 막상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만큼 쉽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뜻은 이해하겠는데 그 것을 제대로 된 한국어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영어원문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 한국어 표현기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국내학자들이 영-한 번역에 대해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한-영 번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 더러 번역기법에 대해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2010년을 목표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단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기업 등이 홈페이지를 신설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영-한 번역 보다는 한-영 수요가 훨씬 더 많다. 현재 제주대 통역대학원 부설 통번역센터에서 수수하는 번역은 거의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되는 작업이 전체 번역 수주의 99.9%이다. 각 관청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절차는 먼저 한국어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한국어에 맞게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올리는 것이다. 번역에 사용되는 외국어는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모두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이다. 이러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제주의 여러 상황이 한국 본토와는 물론 외국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번역을 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개념이 너무나 다른 제주 특유의 상황이나 풍물을 소개할 때 어떤 번역의 기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번역하여야 제주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번역에 대한 여러 이론을 먼저 고찰하고 이것이 실제 번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적절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

원문(번역학에서는 source text, 간략하게 ST)이 모국어일 경우에는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여 번역 텍스트(target text, TT)로의 이동과정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의 여러 지형, 역사, 풍물, 문화를 번역하는 경우에 이 원문자체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 지방의 고객이 서울에 의뢰한 번역이 서울번역가가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번역이 통번역센터로 다시 제주도로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필자가 처음 제주도에 와서 먼저 부딪친 점도 바로 이것인데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통역대학원 학생들도 비슷한 문제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제주에 관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했을 때 일반 중등교육을 받은 영어 원어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야 한다.

영어는 현재 세계공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영어안내판은 쉽게 볼 수 있는데 각국의 고유문화를 영어로 잘 표현한 곳도 있지만 영어로 옮기지 않고 거의 본국의 용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안내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제대로 영어로 충분히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원문의 충실성은 잘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화에 익숙하고 용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나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에도 그 문화, 역사, 신화, 자연을 표현하는데 특이한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에 따라 필자가 다년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영 번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예를 고찰하여 제주에 관한 여러 텍스트의 번역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II. 충실한 번역에서의 침삭

번역을 원문에 맞춰 충실하게 하는 것이 번역자의 의무이다. 여기에는 어휘, 문장 구조, 그 외의 문화적인 배경 등이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언어의 단어가 다른 언어의 단어로 대응되어서 번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설명을 하는 것도

중지만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독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한다. 번역의 충실성은 '아름답지만 부정(不貞)한 여자'라는 뜻의 불어 표현 '벨 앙피델(Belle Infidèle)'에 비유된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름답지만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17세기부터 쓰여온 표현이다. (쓰지유미, 2001). 대학자 베나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애호했던 작품들을 번역한 패로의 번역을 비판하면서 "그의 번역은 내가 루르에서 사랑했던 여인을 연상시킨다. 아름답지만 부정한 여자(Belle Infidèle) 였다." 그 후부터 간결하면서도 듣는 즉시 의미가 와 닿는 이 '벨 앙피델' 표현은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종종 사용되고 있다.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그 당시 번역이 일부 내용 삭제 또는 첨부가 많았던 것 같다. (268-9)

그러므로 번역가는 원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독자의 취향에 맞추느라고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지루한 부분은 삭제하여 원문과 다른 번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의 경우에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번역된 소설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충실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출발어에 충실해야 하나 이를 중시하다보면 도착어가 어색해 지는 경우도 많다. 출발어를 직역하여 도착어가 어색하지 않으면 제일 좋다. 그러나 두 다른 언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않으므로 만약 도착어가 자연스럽게 못하면 이것을 출발어의 어휘수와 균형을 맞추어서 장황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번역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번역하려는 원문과 출발어에 대한 지식과 도착어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번역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우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영-한 번역에서의 아주 짧은 예를 하나 들자면 번역문을 읽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번역한 대목이 있었다.

예 : Marathoner's Diet

이 학생 번역자는 '마라톤주자의 다이어트'라고 번역을 하고 장황하게 주석을 달아 설명을 하였다.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음식과 체중감량 규정식, 감식, 식이요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음식에 더 가까운 뜻이다." 뜻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영어를 그대로 옮겨 다이어트라고 했으니 충실성은 100%라고 볼지 모르지만 실제 이 말이 한글로 쓰여질 때는 '살찌지 않는 음식' 또는 '음식조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고 주석을 다는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을 보면 마라톤주자는 사흘 전부터는 스파게티 등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우리말로 다이어트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된다. 이 표현은 '마라톤주자의 식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가깝다. 물론 주석은 없애야 한다. 번역이란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

도록 가능한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ST의 한 단어를 번역하는데 필요이상의 많은 TL의 어휘를 쓴다면 그 만큼 독자가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정확한 뜻을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첨가가 오히려 어색하다. 이렇게 직선 코스의 번역이 있는데 빙빙 돌아가는 것은 그 만큼 충실성을 살릴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competence(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원문의 충실성을 살리기 위해 첨가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예: Oglivie, a serious, introspective man who read Thoreau and Kierdegaard, told the write that that he was just not ready" for all. (9)

번역: 평소 진지하고 내성적이며 소로와 키에르 키고르의 글을 즐겨 읽던 오글리비는 기자에게 자신이 그 당시 모든 상황에 대해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소로'와 '키에르 키고르' 라는 이 두 단어를 한 눈에 보고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도 전공자가 아니면 대개는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두 단어만 보고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러나 약간의 설명만 해준다면 뜻이 훨씬 더 살아날 것이다. 즉 각주에 소로 (Henry David Thoreau 1817-18620, 미국의 초월주의 작가), 키에르케고르 (Søren Ayabye Kierkegaard 1815-1855, 덴마크의 철학자)를 명시하거나 이것이 너무 장황하다면 본문에 '소로'옆에 (Thoreau)와 '키에르케고르' 다음에 (Kierkegaard)라고 영어만 첨가하면 궁금한 독자는 백과사전을 펴게 될 것이다. '소로'와 미국식 발음으로 '키에르키고르' 라고만 했을 때의 모호함이 없어지고 원 뜻이 확 살아나면서 저자의 의도가 충실히 전달되는 것이다. 번역의 충실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출발어 지식, 주제 지식, 상황지식을 모두 갖추어 독자에 맞는 명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 충실한 번역 일 것이다." (273) 이러한 상황 설명을 위해 번역시 주석은 필요시 꼭 사용하되 너무 자주 주석을 다는 버릇은 좋지 않다. 그러나 첨삭의 적절한 사용은 위 예와 같이 번역의 충실성을 더 향상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영어로 옮길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고 표현 형식도 다른 경우 그대로 번역한다면 영어원어민이 시각에서는 너무나 많은 오점이 드러나게 된다. 번역의 원리를 같이 하여 원문에 첨삭을 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아래와 같이 순수한 체주식의 말을 영어로 옮길 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번역문(target text)은 훨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번역과 텍스트

번역은 그 목표언어가 요구하는 사회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그 원문이 가지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또 번역문에서 표현된 문장이 도착어(target language, TL)의 어법에 맞아야 한다. 즉 도착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정보가 가장 이해가 잘되고 용이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Godeon Tury는 주장하기를

번역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즉 그 고유의 권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번역 활동, 번역가, 번역물에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Translation is supposed to "play a social role, i.e. to fulfil a function allotted by a community to the activity, its practitioners and/or their products in a way which is deemed appropriate in its own terms of reference.) (53)

먼저 목표로 하는 사회의 이러한 기능을 위해 단지 어휘와 문법 지식만 가지고는 목적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번역을 요하는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더구나 지금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주를 홍보하고 관련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고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내문도 만들어서 관광지에 설치하고 각 단체의 외국방문객을 위한 안내책자나 팸플릿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제주 사회의 한-영 번역의 첫 번째 역할은 이 제주 사회를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 관련 번역자는 한글 원문의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재구성하여서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도착어)로 그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번역이란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므로 한-영 번역가는 한국어, 영어의 언어능력이 우선 제일 조건이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와 병행하여 쓰이고 있는 한자를 잘 이해하고 영어를 표현하는데 있어 어색함이 없이 그 언어 자체에 대한 뉴앙스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Beaugrande와 Dressler에 의하면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text는 7가지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cohesion(결속성), coherence(통일성), intentionality(의도), acceptability(수용성), situationality(상황성), informativity(정보성), intertextuality(텍스트간의 관련)이다. (3-12). 이 7가지 기준은 원문과 번역문에 모두 적용된다. 원문에서 7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선 이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번역 과정이 힘들며 번역문에서도 7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며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번역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 7가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Baker가 제시하는 text의 요소가 되는 단어, 구, 문법, 문장의 수준의 번역의 평가 및 text의 평가가 확립되어야 한다.

IV. 번역의 단위와 제주 관련 번역의 예

번역은 문장을 번역하지만 그 구성 요소를 우선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구성 요소로는 단어, 구, 절, 문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문장의 구조 등을 대조해 볼 수 있다. Mona Baker는 체계적인 번역 훈련 접근법으로 등가(equivalence)를 강조한다. 이것을 단어 수준의 등가, 단어 이상의 수준에서의 등가, 문법적인 등가, 문장의 등가 식으로 발전시키며 주제별, 정보별 구조 측면에서 문장의 등가, 응집성(cohesion) 측면의 문장의 등가, 실질적인 등가를 논한다. (vii-vii)

1. 단어 수준의 등가

번역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우선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 의미가 지니는 단위를 번역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단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의미상으로 일대일 번역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rebuild'를 번역하면 이것은 'to build again' 이므로 한국어로는 한 단어가 되지 않는다. 즉 '다시 짓다'로 두 단어가 된다. 그 반대로 '믿지 않다'를 'not to believe'라고 해도 되지만 한 단어로 'disbelieve'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대일 번역은 극히 기본적인 단어 'sun'(태양), mother(어머니) 등이 한 단어로 번역되지만 이런 단어마저도 Selescovitch는 이차적인 뜻(예: sun-권세, 영광; mother-근원,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 완벽한 일대일 대응 번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34) 그러므로 어느 언어 사이에도 일대일 단어의 대응 번역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제주 특유의 단어나 방언을 번역할 때는 가능한 등가를 찾지만 없을 경우에는 설명이 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어에 계속 설명을 첨가한다면 간단명료한 번역이 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말을 그 예로 보면 알 수 있다.

예 : 정지, 통시, 우영

이 단어들은 사전에서 찾기 힘든 방언이지만 지금 60세 이상의 세대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것을 번역하는데 좋은 방법으로는 정지는 *jeongji*(kitchen), 통시는 *tongshi*(toilet), 우영은 *uyoung*(vegetable garden)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함께 계속 나올 때 과연 위와 같이 반복해서 쓴다면 읽는데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장소들이 제주의 가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능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설명, 강조하는 것은 군더더기이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법은 kitchen(*jeongji* in Jeju dialect)라고 처음 나올 때 쓰고 그 다음에는 kitchen, toilet, vegetable garden만 쓰는 것이 원어민이 이해하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돌하르방과 같은 말은 영어에 정확한 대응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모양을 우선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dolhareubang*(grandfather stone)이라고 쓰고 *dolhareubang*이라고 계속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위와 달리 이 두 단어의 관계는 등가어가 아니고 설명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돌하르방이 나오는 텍스트는 거의 이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별도로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인 '오름'도 같은 부류이다. 제주에는 지형을 가리키는 육지에도 없는 독특한 말이다.

예 : 기생화산으로 널리 알려진 '오름'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안과 함께 가장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경관이다. '오름'은 오늘날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옛말로 악(岳) 봉(峰)을 뜻하며 '하라산' 정상을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 화구를 갖고 있으면서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독립화산체 또는 기생화산체를 말한다. (213)

여기서 오름이란 제주도 특유의 표현으로 화산폭발 중 생기는 기생화산을 말한다. 그렇다고 제주 특유의 말을 기생화산이란 뜻의 영어 대체어를 쓰면 제주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오름을 *oreum*(secondary volcano) 또는 *parasitic volcano*로 표현하고 뒤에는 계속 *oreum*을 쓰면 제주의 독특한 분위기도 살아나면서도 뜻의 손실도 일어나지 않는다.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하면 바람직한 번역의 하나가 된다.

번역 : *Oreums*, known as parasitic cones, represent the unique beauty of Jeju along with the basaltic coastline. 'Oreum' is an old Jeju term meaning a small mountain and refers to an independent or parasitic volcano with a crater formed from ejecta. They are distributed all over Jeju Island except on the top of Mt. Halla. (208)

또 하나의 예인 꽃자왈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Gotjawal*로만 표현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gotjawal*(the bush area of the middle mountain)을 쓰거나 대개 원문에 오름처럼 간단한 설명이 수반되므로 설명을 충분히 번역하고 그 뒤에 나올 때는 원음을 살려주는 것도 제주의 독특한 환경을 표현하는데 좋은 전략이다.

제주 특유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위 두 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원칙을 따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단어 수준 이상의 등가

여기서는 두 단어 또는 단어 그룹이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 Baker는 *deliver*라는 단어를 예를 든다. (49)

영 어	한국어
deliver a letter	편지를 배달하다
deliver a lecture	강의하다, 강연하다
deliver a blow	일격을 가하다
deliver a verdict	평결을 내리다
deliver a baby	분만하다
deliver someone from evil	악에서 구하다

이와 같이 'deliver'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달하다'의 의미지만 'deliver a baby'처럼 영어로는 세 단어가 한국어로는 '분만하다'처럼 한 단어가 되는 것이 있다. 영어의 같은 단어가 번역될 때 위와 같이 각기 단어로 번역됨으로써 그 뜻은 목적어에 따라 독립적으로 번역이 된다. 이런 경우는 숙어적인 표현이 많다.

역으로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를 쓰다'의 동사도 다양한 영어 동사로 번역된다.

한국어	영 어
모자를 쓰다	put on a hat
편지를 쓰다	write a letter
종이를 쓰다	use paper
힘을 쓰다	exercise power
애를 쓰다	make an effort
갈겨쓰다	scrawl

한국어도 영어의 한국어 번역처럼 한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으므로 원 뜻 보다는 거의 독립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다.

위의 오름과 연관을 지어 제주 관련 번역에서 가장 잘 나오는 표현 중의 하나를 그 예를 들면

예 : 제주의 오름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제주인은 오름 아래에서 태어나 오름을 오르내리며 살다가 오름 위에 묻혀왔다. (213)

번역 : Oreums in Jeju have been the part and parcel of everyday lives of Jeju people. Jeju people were born under the oreums, lived climbing up and down then and were buried on them. (208)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일대일 대응으로 그대로 'an important part'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용적인 표현 'part and parcel'을 이용하여 번역하면 의미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또한 제주를 소개할 때 '천혜(天惠)의 자연 경관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소개를 많이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천혜의 자연'을 말 그대로 번역하여 'god-blessed or god-given nature'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god가 give한 것이다. 그리고 천혜라는 단어도 한 단어 같지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천혜는 사전적으로는:

천혜(天惠)

natural bounty

heaven's blessing

a gift of nature

natural advantage

favored by nature

Nature is bountiful of favors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문제는 뒤에 단어가 또 있으므로 이러한 구문을 사용하면 번역이 무척 길어지고 복잡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혜'를 간단히 번역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은 의미를 생각하면 '아무도 훼손하지 않은 원시상태의 자연'을 뜻함으로 위에 열거한 '천혜'의 모든 영어 표현을 배제하고 'pristine'으로 간단명료하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혜의 자연 경관'은 'the pristine nature' 또는 'the pristine natural environment'가 acceptable한 번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단어군인 '세계적인 관광지'도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직역을 한다면 여러 version 중 하나는 'world-famous tourist spot'이다. 우선 '세계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으로 해석하여 'world-famous'로 번역하는데, 제주가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주는 그 관광 자원이나 인프라 수준을 두고 볼 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세계적인'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수준'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world-class'가 더 적당하다. 그리고 '관광지'의 번역인데 한 단어 같지만 '관광'과 '지(地, 장소)'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관점에 본 '관광'을 먼저 번역하면 tourism, tourist로 번역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는 '장소'라는 단어의 번역은 '관광'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배열을 할 수 있다.

세계적인 - global, international, universal, world-famous, world-wide

관광 - tourism, tourist

지(地, 장소) - area, district, place, point, region, section, site, space

위로부터 다양한 결합이 생길 수 있다. tourist area, tourist spot, tourist site 등이 '관광지'의 비교적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관광지 번역은 좁은 의미의 관광지이다. 여기서의 제주도라고 하는 관광지는 '여행의 목적지'라는 뜻이 더 강함으로 위의 어느 것도 맞지 않고 'tourist destination'이 가장 잘 맞는 말이다.

원문 : 천혜(天惠)의 자연 경관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지

번역 : a world-class tourist destination in the pristine natural environment

흔히 또 많이 쓰이는 말은 '산과 바다가 잘 조화된 제주도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기서 '산과 바다'는 문제가 없지만 '조화(調和)'가 문제이다. 조화는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harmony; accord; agreement; (a) reconciliation; symphony; symmetry(균제).

이것을 동사로 쓰면 '조화하다'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얻을 수 있다 : harmonize (with); be in harmony[keeping] (with); match (with); agree[accord] (with); be harmonious (with); be consonant (with, to); go well (with); fit in well (with).

번역 1 : Jeju's nature where mountains and seas are in good harmony. or
Jeju's nature where mountains harmonize with seas.

'harmony'를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다.

번역 2 : Jeju's nature where mountains complement seas.

이 정도면 acceptable한 구문이 된다. 산과 바다가 서로 조화한다는 것은 서로가 보충하여 완벽한 제주의 자연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두 단어 이상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번역일 경우에는 관련된 단어를 어법에 맞게 번역하여 연결한다고 그 의미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단어간의 관련성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문이 추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문법적인 등가

SL의 단어(또는 단어군)와 TL의 단어(또는 단어군) 표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자의적, 독립적이어서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어휘만이 원문(ST)을 분

석하고 번역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요소는 문법이다. Baker는 문법을 정의하기를 :

문법이란 단어와 구와 같은 단위가 한 언어에서 결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련의 법칙이며 발화에서 규칙적으로 명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종의 정보이다.

Grammar is the set of rule which determine the way in which units such as words and phrases can be combined in a language and the kind of information which has to be made regularly explicit in utterances. (83)

문법은 두 차원으로 조직되어있는데 이는 형태론(morphology)과 통사론(syntax)이다. 형태론은 문법체계에서 어떤 단어의 형태가 특별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 변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통사론은 단어의 군, 절,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단어와 문장 구조를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단어는 번역자가 선택을 할 여지가 많은 반면 문법은 고정되어있어서 어떤 법칙을 따라야 한다. SL과 TL의 문법구조가 다르면 번역과정에서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ST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잘 파악하여 번역시에 첨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를 보면 숫자, 성(性), 시제, 태(態) 등이 있다.

1) 숫자.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숫자는 별도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영어처럼 단어의 일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뜻하는지 여럿을 뜻하는지 혼돈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들'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하지만 문맥상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 1 : 이 마을 일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예 2 : 이 마을에 사람이 계속 살아왔다.

위 두 문장에서 사람들, 사람은 모두 복수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예 2에서는 원문에 없는 복수형을 더해 people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이다.

예 3 : 이 마을 중심에 우물이 있다.

여기서도 우물의 수가 몇 개 있는 지는 정확하게 표시해 주지는 않지만 우물은 하나라는 것을 번역자는 이해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통의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 주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는 편이다.

예 4 : 방지탑을 쌓았는데 그 후부터 이런 조화가 없고 마음 놓고 생활 했다고 전해져 온다. 이 석탑은 마을 서북쪽 약 200m 지점에는 위치해 있으며 둘레 10m, 높이 5m 가량의 일명 숫탑·암

탑 이라 불리며 남·여를 상징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 마을 중심에는 설촌 당시부터 심어 졌다고 전해오고 있는 팽나무가 있는데 마을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한 소중한 나무로 마을에서 보호수로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숫자가 확실하지 않다. 방지탑이 한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a tower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그 아래 내려오면 숫탑·암탑 또한 남·여라고 하니 이는 명백히 한 쌍의 탑(twin towers)이다. 그러므로 빨리 돌아가서 고쳐야 되겠지만 '방지탑을 쌓았는데'만 있다면 대개는 하나라고 잘못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방지탑'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이므로 일단 검색을 하여 어떠한 탑인지 알면 한 개인지 여러 개 인지 알 수 있다. 제주도 마을 어귀에는 대개 탑을 마주보고 한 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팽나무도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확실치 않으므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예 4 번역: The villagers built **towers** and afterward nothing bad happened and they lived peacefully. The stone **towers** are located 200 m to the northwest of the village with a circumference of 10 m and a height of 5 m. **They** still remain today, and are known as **the male and female tower**, symbolizing a man and woman. In the middle of the village stands **a nettle tree**, which has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the village. Accordingly, **it** has been designated as **an important tree** that is to be protected by the village.

2) 성(性)

대개의 언어에는 성이 있다. 우리말에서는 성이 확실하여 그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번역시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잘 없지만 통역할 경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he/she가 잘못 통역되는 경우는 많다. 제주 역사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성이기 때문에 한-영 번역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인물은 이름만으로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 김 만득은 오히려 남성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배경을 모르면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이름을 보고 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유럽언어의 대부분은 물건에도 남성 여성을 구분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영 번역에서는 크게 주의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문학적이거나 은유의 문장에서는 영어 단어를 성별로 잘 가려서 번역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대개 영어 성구별 기본 법칙을 따르면 된다. 항상 성은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한다.

남성

sun

canon

culture

여성

moon

car, ship

nature

3) 시제

시제는 제주의 역사를 번역할 때는 아주 중요하며 시제의 전후를 정리하여 번역할 때는 시제의 법칙에 맞게 번역한다.

예 : 처음에는 경주 舍씨, 동래 鄭씨, 탐라 夫씨, 탐라 高씨, 진주 姜씨, 군위 吳씨 순으로 정주하게 되었으며, 첫 거주지역은 '기러막동산(현재 장덕거리)' '종나물' '여수물' 등 물 있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지금의 거주지로 옮겨 마을을 형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도리가 설촌된 지는 약 500여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로는 제일 古家인 경주김씨 종손 맥이 14대를 살았고, 동래정씨 종손 맥에도 300년이 지난 家廟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다른 시제로 된 여러 사건을 몇 개의 긴 문장으로 나열하여 시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경우 순서를 확실하게 잡아서 번역한다.

Source Text	Target Text
정주하게 되었으며	(had) settled down
이주하여 살다가	(had) moved and lived
지금의 거주지로 옮겨	(had) moved to this area
마을을 형성해온 것으로	(had) formed (established) a village
설촌된 지는 약 500여년	has been 500 years since it was formed
14대를 살았고	have lived (has been inhabited) for 14 generations
지금도 있다	still exists

번역 : The village **was** first settled by the Kims of Gyeongju, the Jeongs of Dongnae, the Bus of Tamna, the Gohs of Tamna, the Ghangs of Jinu, and the Ohs of Gunwi. The first settlements were 'Gireomak Hill (now Jangdeokgeroi), Jongnamul, and Yeosumul where water was abundant. Later they **moved** to and **established** this village about 500 years ago, by the facts that the oldest house **has been inhabited** by 14 generations of the Kims of Gyeongju and the family shrine of the Jeongs of Dongnae **is** 300 years old.

4) 태(Voice)

영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동태가 많이 쓰이고 있으나 불행히도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다.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를 우리말로 수동태 식으로 할 때는 ' --해지다' 또는 '--로 되다'로 표현되는데 때로는 상당히 어색하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이러한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방언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수동태로 바꾼다면 뜻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는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은데 아래와 같은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케 하고 다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예 1 : There is no barrier **to be crossed**, no mysteriously other kind of being to be met and placated.

예 2 : There is no barrier that <one> should go over, and <we> do not meet or placate a mysterious different being (108)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back-translation을 시켜보니 일본말의 특색이 나타나 능동태로 재번역이 되었다.

제주의 풍물, 역사, 문화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쓸 때 수동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원문 :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화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총 면적 1,82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화산섬이라는 점,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태평양과 마주해 있다는 지리적 고립성으로 요약된다. 화산섬이라는 사실은 농경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지표에 많이 노출된 암반은 실제로 농사지을 땅을 적게 만든다. 게다가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토양은 돌이 많고 토심(土深)이 얕아 농사짓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123)

번역 :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is **summarized** by two terms: a volcanic island of about 1,820 square kilometers **formed by** volcanic eruption, and geographic isolation far from the mainland in th Pacific Ocean. Being a volcanic island is a handicap for farming. Rocky earth greatly reduced the arable area that could **be used** for farming. The rocky and shallow volcanic soil makes it hard to cultivate land. As well, the ground with its porous volcanic rocks and lava allows water to drain underground making the surface streams dry. For these reasons, Jeju is deficient in both drinking and farming water. (118)

여기서 'the ground with its porous volcanic and rocks and lava'에서 'with'를 'composed of'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 대개 수동태를 사용할 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된다. 아래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 해양생물권 보전구역 회원들은 생물권보전구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얻기 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여기서 누가 회원들에게 권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또 SeaBRNet이라는 단체가 요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방문은 회원들이 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번역 : SeaBRNet members **are advised to** visit other countries to share and/or to gain knowledge abd experience regarding biosphere reserve management. (179)

태를 사용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능동태, 수동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능

동태라고 그대로 능동태로 번역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수동태가 그대로 수동태로 번역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위와 같이 적절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동태는 과학, 기술, 객관적인 텍스트의 번역에 많이 쓰인다.

4. 문장의 등가 : 응집력(Cohesion)

응집력은 단어, 문법,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의 네트워크로서 text의 여러 부분을 연결해준다. 그러므로 문장 표면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단어나 표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Halliday와 Hasan은 영어에서 응집력의 5가지의 cohesive device를 제시하는데 이는 reference, substitution, ellipsis, conjunction 과 lexical cohesion. (181) 이러한 사항은 일반 번역에 모두 적용되는데 제주 관련 텍스트를 보면 :

원문 : 오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오름 전체의 기능과 연관지어면서 따져봐야 한다. 이를테면 오름을 리조트 단지나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청정 지하수 함양과 보전의 기능 손실까지 감안해서 그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제주인에게 오름이 삶의 터전으로 역할을 했듯이, 현재와 미래의 제주인에게도 오름은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름의 가치는 단순한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 정서적 가치 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4)

번역 : Oreums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usage but **in terms of** their function as a whole. For instance, when developing an oreum into a resort complex or a golf course, we should figure out the benefit and damage incurred including the preservation of clean underground water. Oreums should continue to be the source of life for Jeju people today and in the future as it always was and should continue to be. The value of oreums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esthetical, emotional as well as monetary value.

여기서 'Oreums'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reference로 받기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오름이 주안점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oreum은 repetition(반복)으로 일어나도 무방하다. 그리고 'continue to be the source'와 비교하여 이것이 재등장할 때 'was and should continue to be'가 됨으로써 ellipsis가 일어나서 문장이 더 간결해 졌다. 그리고 'not' 'but'을 사용하여 상반된 용도를 대조하여 보여준다. 또한 'For instance'라는 conjunction의 additive를 사용함으로써 오름의 사용가치가 좀 더 구체적이 되었다. 그리고 오름의 가치를 다각적인 면에서 보는데 있어서의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lexical cohesion도 잘 해결되었지만 마지막 in terms of는 너무 많이 사용한 관계로 'of' 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장의 등가에 있어서 응집력의 중요성은 절실하다. 문장자체의 응집력, 나아가서 문맥

의 전후를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text 전반의 응집력은 번역의 질을 상승시켜주는데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Baker가 제시한 여러 수준을 모델로 제주관련 번역을 고찰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21세기에 번역의 필요성과 요구는 점점 증가한다. 위와 같은 척도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는 제주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제주에서 활성화 될 금융, 첨단과학, 생명공학, 기술 등의 번역에 대한 수요도 더욱 더 증가될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 윤용택 (2005년). '오름을 통해서 본 제주의 자연과 문화', 『섬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발표논문집). pp. 208-217.
- 최 정화 (2001년). '통역 번역의 충실성',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제 3권.
- 하순애 (2005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성' 섬 생물권 보전지 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발표논문집). pp. 123-126.
- Baker, Mona.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New York : Routledge, 1999.
-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The Statutes of the South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Insular Biosphere Reserves* (proceedings). pp. 177-181
- Beaugrande, Robert de & Wolfgang Dressler. *Informa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1981.
- Selescovitch, Danica.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Problems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Trans. by Stephanie Dailey and E. Norman McMillan. Washington: Pen and Booth, 1978.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Strategy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Abstract: To Koreans in general, translation means changing English into Korean equivalents. Many Koreans are interested in translation when they think that they can understand English texts. Translation, however, means more than this. In the process, the translator may come across expressions which dictionaries cannot help them solve the problem, and then they cannot find the Korean equivalents. This is a matter of translator's competence. Many Korean scholars have published articles and books concerning English-Korean translation and discuss whether some Korean expressions are right or no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original text or the process, the translator only focuses the product. Regrettably, there have been few articles and books which discuss the technique of translating Korean into English, partly because in this field there are not many E-K translators competent enough to take interest to tackle this task. Jeju, however, needs more E-K translators than any other time in the process of its transformation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and self-governing special province. A great deal of organizations in Jeju have been rushing towards opening their home pages and issuing booklets and leaflets for public relations. The exact word-to word E-K translation in many cases does not convey the message to the English readers. Besides, the Korean text which deals with Jeju's unique culture, society and topography is somewhat strange to mainland Koreans and even to the young generations of Jeju. In addition to finding good techniques of E-K translation, understanding the Korean text is another task to tackle. In this article, some translation theories are discussed as a background and then some examples are given in order to set up an effective strategy for K-E translation.

KEY WORDS: translation, Jeju, history, culture, geography